

명군의 재출병과 4로 진공작전

유 경

(중국군사과학원 연구원)

16세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은 통일전쟁 중 전공을 세운 무사와 다이묘(大名)들의 대표인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고 류큐(琉球; 지금의 오키나와), 필리핀, 조선과 명나라를 정복하고, 일본과 조선 그리고 명 삼국을 하나로 하는 대제국을 건립하여 동아시아 최고 통치자가 되고자 도발한 침략전쟁이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처음에는 명과 조선군의 저항에 개성, 한성 근처까지 퇴각하였다. 이후 일본군은 식량공급의 어려움과 역병으로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담판을 통해 일본군 일부 병력만이 부산 등지를 불법점거하고 대부분의 병력은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철군은 단지 침략계획을 실현할 방법이 없게 되자 시간을 벌기 위해 내놓은 술책이었다.

1597년, 풍신수길(豊臣秀吉)은 2차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이번 침략에서는 1차 침공시 진격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고, 병력분산과 명조의 원군출병 이후 방어선을 공고히 할 방법이 없었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한 작전방침을 세웠다. 우선, 조선의 곡창지대인 전라, 충청도를 침략한 후 부산, 서생포(西生浦) 등 연해일대로 돌아가 조선으로 하여금 화평하도록 강제하여 서서히 중국을 삼키려 했다. 그러나 조선과 명조 정부는 일본의 2차 침략에 대해 정신적, 물자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민관군과 명조원군은 비록 용감하게 저항하였으나 전쟁초기 칠천도(漆川島) 수전과 남원성(南原城) 방어작전의 패배를 피할 수 없었다. 일본군은 조선 왕실 한성의 서부방어선인 남원(南原), 전주(全州) 두 지역을 전략적 요지로 하여 한성을 직접 압박하여 전세가 매우 위급해졌다. 다행히도 연합군은 직산(稷山)전에서 우세에 있던 화통(火銃)과 기마병이 일본 선두부대를 궤멸하고, 일본군 또한 병사를 무모하게 진격하였다가 더 큰 손실을 입을까 두려워 원래의 작전대로 남쪽으로 연해 요충지 울산(蔚山), 순천(順天)과 사주(泗州) 등지로 철수하면서 진영방어를 공고히 하였다.

그 해 말, 명 원군이 계속 조선에 들어옴에 따라 병력이 5만 여명에 달한 연합군은 각지로 출동하여 울산을 무단 점거하고 있던 일본군의 선봉인 가등청정(加藤清正)부대를 공격 목표로 삼고, 순천(順天)에 주둔하고 있던 소서행장(小西行長) 부대는 견제해나감으로써 울산에 주둔한 가등청정(加藤清正) 부대를 지원할 수 없도록 저지하였다. 전세(戰勢)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장 지휘부의 실책으로, 연합군 주력군을 도산(島山)에 주둔시킴으로써 침략군을 궤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연합군이 철수할 때 조직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일본군의 공격에 큰 손실을 입어 전세가 역전되었다. 그러나 일본군 역시 피로와 사기저하로 전과를 올리기 어려워 병력 절반을 귀국시켜 가등(加藤), 도진(島津)과 소서(小西)부대 총 6만 여명만이 연해요충지 울산, 순천과 사천에 남아 진영을 구축하고 연합군과 장기적으로 대치했다.

그러나 연합군은 여전히 전장에서의 전략적 우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 후, 연합군은 일본의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사망함에 따라 일본군이 전쟁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명조에게 계속적으로 원군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수군(水軍) 증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전방의 장수를 새로 인선(人選)하고 두 번째 전면적 진격을 위해 병력을 다시 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량진에서 일본수군을 철저히 격퇴함으로써 양국의 군민이 함께 침략자에 저항하는 이 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일본의 조선침략에 저항한 이 전쟁을 종합해볼 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경험을 도출할 수 있다. ① 초반승리를 준비하는 것이 승리의 기초이다; ② 장점을 발양하고 단점을 피하는 것(揚長避短)이 전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③ 정확하고 민첩한 지휘는 견고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이다. 연합군이 노량진 수전에서 침략자를 패퇴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작전지도원칙을 철저히 따른 이유라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06. 4. 5, 심사완료일 : 2006. 7. 25)

주제어 : 도요토미 히데요시, 제2차 일본침략, 4로 진공, 조명연합, 노량진해전

K C I

明军第二次出兵与四路进攻作战

刘 庆

(中国军事科学院 研究员)

明万历十八年(1590年)、日本关白丰臣秀吉最终完成了长达8年之久的全国统一战争。作为在统一战争中立下战功的武士和大名集团利益的代表,他为了巩固自己的统治,更为了实现征服琉球、菲律宾、朝鲜和明朝,建立日本、朝鲜、大明三国为一体的大帝国、成为整个东亚最高统治者的梦想,于万历二十年四月十三日(1592年5月23日)发动了入侵朝鲜的战争。六月十五日,明军应邀入朝抗倭,在随后进行的平壤、碧蹄等战役中,两军互有胜负,最终对峙于开城、汉城之间。次年三月,日军将领小西行长因龙山粮仓被焚、粮食供应困难、军中疾疫流行,深感难以继续作战,遂写信“恳求封贡东归”。¹⁾ 双方经过谈判,日军答应从朝鲜撤退并归还被俘的朝鲜二王子临海君、顺和君及大臣们。当年七月下旬,日军大部分撤出朝鲜,但仍有部分兵力盘踞在釜山等地。明军则留下刘綎军5,000人暂驻朝鲜,其余全部撤回。

然而,所谓“和谈”和“撤兵”只是日军的缓兵之计。

当明朝政府按和谈约定封丰臣秀吉为日本国王的时候,野心勃勃的丰臣秀吉却在加紧调集军队发动第二次入侵。万历二十五年(1597年)正月,加藤清正率领的日军先头部队进抵朝鲜釜山附近的机张营。六月,侵朝日军主力大部分踏上朝鲜土

1) 宋应昌:『经略复国要编』卷七。

地、与先头部队汇合、准备首先夺取朝鲜的全罗、忠清2道。²⁾ 与此同时、明朝廷也查明日军侵略意图、决定接受朝鲜请求、任命杨镐为都察院右佥都御史经理朝鲜军务、麻贵为备倭大将军总兵官、邢玠为兵部尚书兼左副都御史总督蓟辽保定军务兼理粮饷、并派吴惟忠等领兵数千先期入朝。至此、明、朝联军共同抗击日军入侵的战争进入了第二阶段。

一、明、朝联军初期作战失利

日军第一次入侵朝鲜期间、其军事实力并没有遭受很大损失。惟当时日军从釜山登陆后、便分兵冒进、仅用1个月的时间就占领了王京汉城、开城、平壤等战略要地、兵力几乎遍布八道各地。³⁾ 所以在万历二十一年(1593年)初明、朝联军攻克平壤之后、散处各地的日军无法迅速集中、形成坚固防线、遂全部后撤至汉城以南地区、拱手让出已经占领的朝鲜半壁江山。日军第二次入侵时、接受了第一次的教训、采取较为谨慎的作战方针：首先进攻朝鲜富庶的全罗、忠清二道、然后撤回釜山、西生浦等沿海一带、迫使朝鲜求和、徐图中国。其中、作为侵朝急先锋的加藤清正部由庆州或密州或大丘进兵、小西行长部则由宜宁、晋宁进兵。⁴⁾ 与这个长期盘踞朝鲜、削弱朝鲜实力的计划相配合、此次日军卷土重来、每到一地、皆极尽烧杀劫掠之能事。朝鲜居民“无论男女老少、能步者掳去、不能步者尽杀。以朝鲜所掳之人送于日本、代为耕作。以日本耕作之人替换为兵、年年侵犯”。⁵⁾

2) 日军第二次侵朝兵力：据『日本战史·朝鲜役』载为8个军121,100人、加上原在釜山等地的守备部队共141,490人；据吴晗辑『朝鲜李朝实录中的中国史料』(以下简称『李朝实录』)上编卷四十载、当时日军为18万。

3) 第一军小西行长部18,000余人在平安道的平壤一带、第二军加藤清正部22,000余人在咸镜道、第三军黑田长政部11,000人在黄海道、第四军毛利吉成14,000人在江原道、第五军福岛正则部15,000余人在忠清道、第六军小早川隆景部25,000余人在全罗道、第七军毛利辉元等部41,000余人在庆尚道、第八军宇喜多秀嘉等部20,000余人在京畿道。

4) 此系日军将领小西行长的手下要时罗对朝鲜官员透露的作战计划、见『李朝实录』上编卷四十。

朝鲜和明朝政府对日军二次入侵并没有充分的精神和物资准备。朝鲜国王李暉及大臣们不仅在和议期间没有有效利用时间加强防务,就连小西行长的手下要时罗在万历二十四年(1596年)九月把入侵计划透露给朝鲜庆尚右兵使金应瑞之后,也没有积极采取应对措施;对要时罗提出的“朝鲜应该坚壁清野、军粮、军器、牛马、老弱须尽移海岛、或藏深僻之处、阇闾无一升之谷;选择丁壮、虽未能当战、但在日军所经之处、或相战、或夜击”的战法建议,⁶⁾更没有择善而从。他们反到是在战前撤换了屡立战功的庆尚、全罗、忠清三道水军统制使李舜臣,以昏庸不谙军事、在前期抗倭作战时焚营下海、乘船逃命的右水使元均取而代之,削弱了朝鲜水军的战斗力和将士斗志。明朝政府满足于册封丰臣秀吉、抚绥日本,对二次派兵入朝抗倭缺少必要的准备。就在日军加藤清正部200艘战船进抵朝鲜海岸的万历二十五年(1597年)正月、明兵部还在宣称“今封竣、即有警、宜自防、不得专恃天朝”。⁷⁾二月、日本的狼子野心暴露无疑、明政府认识到问题的严重性、始决心援助朝鲜,但匆忙之间能调集入朝的部队十分有限,仅派出吴惟忠部约4,000人、杨元部3,000余人、陈愚衷部2,000人分驻忠州、南原和全州这几个战略要点、兵力单薄、驻防分散、尚未形成犄角策应和纵深防御的态势。为改变明军的不利处境、时任部尚书兼左副都御史总督蓟辽保定军务兼理粮饷的邢玠“疏请募兵川、浙、并调蓟、辽、宣、大、山、陕及福建、吴淞水兵”增援,并准备“候宣、大兵到、乘倭未备、竟掩袭釜山”。⁸⁾可惜明军集结入朝速度十分缓慢,这个带有积极进攻姿态的“奇计”没来得及实施,就随着战场形势的迅速恶化变为泡影。

七月、日军首先进攻驻泊漆川岛的朝鲜水军。朝鲜水军向来娴于水战,在前任统制使李舜臣的训练下,颇具战斗力,与战船吨位、结构皆较差的日本水军交锋并不落于下风。但新任三道水军使元均调度乖张、营中号令不行、将士离心离德,在得知日军渡过朝鲜海峡时竟无所作为。十五日夜,日军水陆夹攻朝鲜水军,仓促应

5) 『李朝实录』上编卷四十。

6) 『李朝实录』上编卷四十。

7) 谈迁:『国榷』卷七七。

8) 谷应泰:『明史纪事本末·援朝鲜』。

战的朝鲜水军战船尽被焚毁、元均等人兵败身亡、致使位于“朝鲜西海口、右障南原、为全罗外藩”的战略要地闲山岛被日军占领。⁹⁾至此、日军全部控制了海上通道、随时能够扬帆天津、登莱、切断从山东、辽东向朝鲜运送援军和粮食的航线、并可以放手发动陆上进攻。而明朝虽然为了夺取海上优势从南方调集大量的沙船、唬船和遮洋船、却缓不济急、仅有3,000名水军集结于旅顺、尚未形成海上作战能力、联军不得不匆匆部署汉江、大同江一带防务、一时间朝鲜国内风声鹤唳、形势相当紧张。

日军控制闲山诸岛后、在陆上战场也发动两路进攻：右路以加藤清正为先锋、兵锋直指忠清道、总兵力约64,300人；左路以小西行长为先锋、企图攻占全罗道、总兵力约49,600人。八月中旬、日军宇喜多秀嘉和小西行长部5万余人包围了南原城。明军守将杨元面对日军大兵压境、频频向百里之外的全州求援、而怯懦胆小的全州明军守将陈愚衷自忖兵力弱小、吓的不敢发兵。十六日夜、日军攻破南门、杨元负伤带10余人逃走、守城明、朝联军誓死不降、除2,000余人突围出去外、其余4,000余人全部阵亡。¹⁰⁾南原失陷后、全州州民争相弃城而走、陈愚衷部也不战而溃。当时朝鲜王京汉城以东、西两隘为屏障、“东隘为乌岭、忠州、西隘为南原、全州”。¹¹⁾此时西隘两城皆失、日军大兵压境、兵单力弱的明军全部退回汉城、打算依托汉江天险防守、前线主将麻贵甚至建议明军进一步退往鸭绿江一线防御。眼看汉城形势危急、朝鲜王妃世子纷纷北走、城中一片混乱。幸亏杨镐从平壤赶到汉城、人心始定。于是麻贵派解生、牛伯英等率精兵2,000赴稷山防守、朝鲜王廷也派都体察使李元翼“由乌岭出忠清道、遮贼锋”。¹²⁾九月初七、日军黑山长政部到达稷山、明军乘日军未及排列成阵、突然派出骑兵掩袭、又以铳炮猛击日军、日军不支退去。明援军摆赛部2,000人与解生部合兵追击、再次击败日军。

稷山之战后、日将小西行长惧怕加藤清正轻兵冒进、遂按丰臣秀吉原来制定的

9) 谷应泰：『明史纪事本末·援朝鲜』。

10) 『明神宗实录』卷三百二十二。

11) 谷应泰：『明史纪事本末·援朝鲜』。

12) 谷应泰：『明史纪事本末·援朝鲜』。

作战计划、南撤至沿海要点筑营屯兵、加藤清正部也不敢孤军深入、与小西行长、岛津义弘等部分驻于蔚山、顺天和泗州。明军则等待国内援军的到来、以求改变战场上力量对比。

二、明、朝联军的四路进攻

十一月底、明军总督邢玠到达汉城、当时明军入朝兵力已达到4万之众、加上朝军共计5万余人、遂决定发动四路进攻：明军分成左、中、右三协、经理杨镐与提督麻贵率左、右协为主力、沿忠州向安东、庆州方向发展进攻、主攻日军加藤清正部；中协骑兵屯宜宁、随时支持庆州和全罗方向、配合左、右协的进攻；同时、又从三协中派出骑兵1,500余人、同朝军一起沿天安、全州、南原而下、佯攻顺天、牵制小西行长所部、阻其东援。

十二月二十三日夜、联军三路直捣加藤清正部2万余人据守的蔚山。黎明之际、左协李如梅部前锋与日军接触。明军佯败、诱敌追击、继以主力参战、歼敌400余人。随后明军进攻蔚山城、城内营房火起、守兵败退至与蔚山城陆路相连的岛山营据守。该营建于陡峭山坡之上、有外有土墙、内有石墙、极为坚固。明军火炮限于地形条件、很难发挥作用。于是明、朝联军屯兵城外、实行长困久围之策、以杨镐、麻贵扼城北、高策扼城东、吴惟忠扼城南、李芳春扼城西、另以李如梅、摆赛在江边拦截来自西生浦方向的敌人援军、祖承训、颇贵扼守通往釜山的陆上通道。其间、战场阴雨不止、“人马饥冻、泥泞没膝”、¹³⁾ 联军多次攻城都没有成功、火炮轰击、柴草火攻均未奏效。朝军元帅权栗亲自督战、亦因“贼丸如雨、死伤极多、不得已退阵”。¹⁴⁾ 由于天气寒冷、粮草供应不足、将士忍饥受冻、仅战马就死亡千匹之多。此时守城日军也陷入窘境、岛山营城中无井无水、只能靠接雨水止

13) 『李朝实录』上编卷四十一。

14) 同上。

渴、战斗力大为减弱、城中万余人中能够执兵器作战的仅有千人。日军一度派人请求网开一面、让出一条生路与西生蒲方向的援军会合。可惜杨镐等明军将领没有及时利用这个天赐良机、“围三缺一、设伏歼敌”、而是一口予以回绝、同时又没有及时调整兵力部署、派主力赴西生蒲方向阻击或歼其援军、大军仍然部署于城下、频频发动无效的攻势。

万历二十六年(1598年)正月初二、西生蒲方向的日本援军增至1.3万人。他们虚张声势、与城内日军遥相呼应、联军的战场处境由此逐渐恶化。初四、杨镐、麻贵以多日攻城不果、敌人应援又至、决定撤军。但联军撤军行动组织的极为混乱、城外营地到处起火、疲卒病患呼叫声震天、有的部队甚至不待命令就仓皇逃离、将大批辎重丢弃在战场上。被困于城内的日军和日本援军乘机追杀、联军“军士死者万余、游击卢继忠三千人歼焉”。据战后“诸营上簿书”、整个蔚山之战“士卒亡者二万”。¹⁵⁾

蔚山之战、联军犯了顿兵坚城的兵家大忌、先胜后败、功亏一篑、特别是在组织撤军时混乱不堪、损失惨重、不仅失去痛歼侵朝急先锋加藤清正的良机、也使得战场形势发生逆转。而日军也因为将惫兵疲、士气低落、难以乘胜扩大战果、遂调一半兵力回国休整、只留加藤、岛津和小西部共计64,700人分守沿海要点蔚山、顺天和泗州、构筑坚固城垒与联军长期对峙。

为了重新部署对侵朝日军的进攻、总督邢玠一边请求明朝继续增兵、尤其是加派水军入朝、同时调整前线将领人选、分四路再次进兵。东路以麻贵为将、有明军2.4万人、朝军5,514人、进剿加藤清正部；中路以董一元为将、有明军26,800人、朝军2,215人、进剿岛津义弘部；西路以刘珽为将、有明军21,900人、朝军5,928人、进剿小西行长部；水路则有明水军陈璘部19,400人、朝水军7,328人、在海上策应配合。联军113,000余人、日军64,000余人、联军总兵力约为日军1倍。九月二十日、联军四路出击、水陆夹击。在随后14天的作战中、战役进展并不理想、将领之间不能互相配合、战场指挥频频失误、损兵折将高达万人之多。其中中路军进

15) 谷应泰：『明史纪事本末·援朝鲜』。关于此役明军伤亡还有两说、『李朝实录』称明军死伤三四千人、『日本战史朝鲜役』称此战明军死伤近2万、遗弃尸体10386具。

攻泗川新寨时，由于游击彭信古营中火药失火，牵连全军大乱，日军出寨追杀，明军伤亡达7,000之众；配合刘珽西路军进攻曳桥的明、朝水军也因战船搁浅，被日军焚烧多艘，进逼蔚山的麻贵部则误入空城遇伏，战败而退。除了明、朝水军仍坚持海上攻击外，其它各个方向的攻势都停顿下来。

早在邢玠发动第二次四路进攻之前，发动侵朝战争的主谋丰臣秀吉已于八月病死，消息传到前线，日军普遍失去斗志，再加上虽然不久前联军的攻势遭受挫折，但日军力量较弱的总体态势并没有发生根本改变。于是日军将领决定按照丰臣秀吉的遗命撤回回国。

十一月十七日，中路东洋仓之日军首先开始撤退，次日加藤清正也焚烧城堡退走。只有小西行长部受阻于明、朝水军的海上封锁，遂向岛津义弘求援。此时负责封锁日军海上退路的是明军御委总兵官陈璘和朝鲜水军统制使李舜臣。李舜臣自元均败亡后被重新起用，并在战斗中与陈璘倾心相处，其足智多谋深为陈璘所钦佩。听说陈璘曾允许放走日军的一只小船，李舜臣认为这是小西行长派去求援之人，并判断日军援兵将至，建议预先设伏。陈璘赞同这一计划。十八日，明水军老将邓子龙率军千人伏于露梁津海峡北侧，朝水军李舜臣部伏于南海岛的观音浦，陈璘率明水军主力停泊于竹岛及水门洞港湾。当天夜里，岛津义弘部战船300艘、鸭南皋部冲锋船60艘，对马岛太守船60艘驶入露梁水域，遭到明、朝水军围攻。李舜臣亲自擂鼓督战，冲向敌船，陷入重围。陈璘闯入敌阵相救，亦被团团围住。紧急之时，陈璘下令以炮火轰击日船，以喷筒齐发焚烧日船，只拥有鸟铳的日本水军火力较弱，只好采取靠帮跳船战术，又大多被明军士卒用长枪戳入大海。明水军老将邓子龙在率船攻击日船时，力战身死。朝水军统制使李舜臣胸中日军弹丸，当手下把他扶入帐中休息时，他嘱咐侄子李莞“战方急，慎勿言我死”。¹⁶⁾ 李舜臣牺牲后，由李莞以其名义继续指挥作战，最终明、朝联军击溃日本水军，焚毁敌战船200艘，俘获100艘，斩首500级，生擒180余人，日军落水溺死者无数。¹⁷⁾ 二十二日，陈璘等将逃往乙山的日军余部全部歼灭，而小西行长则乘水军鏖战正酣之际逃遁。

16) 『李朝实录』上编卷四十二。

17) 同上。

三、对明、朝联军抗击日军第二次入侵的评价

明军第二次入朝，与朝军共同抗倭，是整个战争中双方投入兵力最多、战场范围最广、战况也最为惨烈的作战。虽然在明、朝联军的猛烈抗击下，最终迫使侵略者退出朝鲜，但在其战略战术上仍有许多经验教训值得认真总结。

其一、有备“先胜”是赢得战争胜利的基础。朝鲜王廷在强敌覬覦的巨大威胁下，没有利用日军主力第一次撤兵后的机会尽快恢复国内残破的经济，认真扩充和训练军队、加强防务，反而自毁长城，撤掉了优秀的水军将领李舜臣的职务。明朝政府被丰臣秀吉的“和谈”烟幕所迷惑，以为册封丰臣秀吉后会打消其侵略念头。其实日本将领小西在谈判时就提出占领朝鲜八道中的四道，要朝鲜送一王子和大臣到日本为质，要朝鲜送交永不背叛日本的誓约以及要求明朝把公主嫁给天皇、恢复勘合贸易、两国大臣交换誓约等一系列无理要求。但明朝谈判代表隐瞒了上述要求，误导了明朝君臣对侵略者的认识，根本不做任何防备。无备则有患。朝鲜和明朝政府疏于战备的恶果在日军第二次入侵初期充分显示出来。战火重燃之际，明军仓促间能够派遣入朝作战的兵力仅有几千人，与侵朝日军相比，明、朝联军实力在总体上处于劣势。特别是漆川岛战败后，制海权落入日本水军手中，不仅威胁着明朝运送军队和粮草入朝的海上航线，明、朝联军还需要动员力量加强朝鲜西海岸的防务，使本来捉襟见肘的兵力部署更加困难。战前准备不足还直接导致了初期陆上作战的失利。南原之战联军以弱小之兵对抗将近10倍于己之敌，尽管守城士兵在火药罄尽、箭石用光的情况下殊死奋战，仍无法改变失败的命运，汉城以南地区迅速丧失。联军发动的四路进攻作战，亦因为缺少强大水军的配合，无法拦截日军从海上对蔚山的增援，终致失败。反之，做好充分的交战准备、营造战略上的优势地位（即《孙子兵法》所说的“先胜”），则可以弥补战术上的失误和不足，为最后的胜利打下牢固的基础。在第二次抗击日军入侵时，明朝总督邢玠坚持不断请求国内增兵运粮入朝，形成对日战略上的优势，这样即使日军取得南原、蔚山之战的胜利，仍不

敢肆意进犯、不得不收缩兵力退据东岸沿海要点。明、朝两国水军实力并不弱于日本水军。但漆川岛海战后、朝军的水军优势不复存在。随着李舜臣的复职和明朝把在抗倭战争中建立起来的广东、浙江水军作为一支战略力量被派往朝鲜、双方海上力量的对比终于发生逆转。在邢玠发动第二次四路进攻中、明、朝水军都曾遭受挫折、但仍保持着海上力量的优势地位、对日军采取积极进攻的高压态势、最终李舜臣率领的朝鲜水军和陈璘、邓子龙等人指挥的明朝水军利用日军撤退之机、夺取露梁津海战的胜利、为抗倭战争的胜利画上了一个圆满的句号。

其二、扬长避短是夺取战场优势的前提。与日军相比、明军火炮威力大、射程远、三眼铳(世界上最早的连发火器)发射迅速、沙船行驶快捷、便于接敌鏖战、唬船帆桨兼备、进退自如、所以其骑兵、炮兵和水军都具有较强的战斗力。朝鲜水军训练有素、装备的龟甲船远强于日军战船。但朝鲜多山、多水田、在平原旷野上对付步兵颇有优势的明军骑兵在这种地形上通常无法发挥固有的威力、曾任援朝明军主将的兵部右侍郎宋应昌说“破倭利于步”、¹⁸⁾ 这一认识是有道理的。日军也很清楚自己在武器装备、单兵格斗能力和火器威力上处于下风、¹⁹⁾ 因此竭力避免与联军野战、固守城寨时也很注意利用特殊的地形和坚固的城垣、如岛山营地势陡峭、有土墙、石墙环绕；曳桥三面环海、向陆一面筑有坚固堡垒、使联军火器的威力大打折扣。而一旦联军发挥了自己在野战歼敌和攻城作战方面的优势、如在稷山之战中派骑兵突袭侧后、以火器猛击、攻蔚山城时用火炮轰击、胜利使垂手可得。明、朝水军进攻曳桥时、面对守城的日军步兵、战绩乏善可陈、直到出现与日本水军在露梁津海域交战的机会、才把他们的优势淋漓尽致地发挥出来。

其三、正确灵活的指挥是摧坚破敌的关键。邢玠部署四路进攻日军、虽然缺乏水军的配合、但能够做到“我专敌分”、集中兵力于一个方向、同时对小西行长等部予以牵制、因而战局初期发展比较顺利；稷山之战中、将领解生避开日军正面、发动侧后袭击的战法也令敌人措手不及；露梁津海战前、李舜臣正确判断敌人企图、

18) 宋应昌：『经略复国要编』卷四。

19) 日军缺乏骑兵、长于步战、但大部分武士和轻装步兵士兵盔甲为竹制、只有少数人可穿铁制盔甲。

预先设伏、陈璘在战船被日船包围的情况下、果断决定下碇停船、以炮火轰击只有鸟铳等小型火器的日船、这些都是正确灵活指挥的典型例子。同时、也有部分将领或墨守陈规、或轻敌冒进、在作战指挥上出现了重大的失误。比如联军攻击岛山营、长时间顿兵于坚城之下、就应当及时改为诱敌外出、野战歼之、或者围点打援、消灭日军援兵。可惜杨镐等人战术、战法呆板僵化、临敌不知变计、终使自己陷入被动境地。但灵活指挥并不是乱指挥、瞎指挥。明军将领贸然突入城中、中伏身死之事不止一例、²⁰⁾ 而在撤退时各级将领常常组织不力、队伍混乱、蔚山之战和新寨之战皆因此导致联军的先胜后败、结果是很令人痛心的。

K C I

20) 祖承训在平壤、麻贵在蔚山、都因为轻率进入空城而中埋伏。

<ABSTRACT>

Ming's Second Expedition and the Four-Way Advance Strategy

Yu, Kyoung

The war of invasion Japan waged against *Joseon* in the 16th Century arose from *Toyotomi Hideyoshi's* ambition to conquer *Ryukyu* (today's *Okinawa*), Philippines, *Joseon* and Ming and become the supreme ruler in the Far East. Having occupied much of *Joseon*, the Japanese forces were pushed back by Ming-*Joseon* counterattack and retreated to *Gaeseong*, then to *Haneong*. Afterwards the Japanese, plagued by difficulties in food supply lines and contagions, resorted to peace negotiations and withdrew for the most part to the Japanese Isles, leaving some forces to maintain illegal occupation of the *Busan* region. This withdrawal, however, was only a means to buy time for renewing the war effort that could not proceed immediately.

In 1597 *Toyotomi Hideyoshi* launched his second invasion of *Joseon*. Remembering that in the first invasion his troops had advanced too far in too quickly, and that once the forces were divided in locations they failed to solidify defenses against the allied counterattack, he drew up more cautious operational plans. First he invaded *Jeonra* and *Chungcheong* Province, *Joseon's* principal cereal-producing regions, and circled round *Busan* and *Seosangpo*, intending to force *Joseon* to peace agreement and make it the foothold of invasion of China. *Joseon* and Ming were not mentally or materially prepared for this second invasion, and though their

combined forces resisted courageously they were unable to avoid the naval defeat at *Chilcheon* Isle and the loss of *Namwon* Fortress. The Japanese pressured *Hanseong* by attacking *Namwon* and *Jeonju*, the two strategic points of the capital's southern defense line, and the threat became grave. Fortunately the allies, taking advantage of their superiority in cannons and cavalry, succeeded in destroying the leading Japanese units at *Jiksan*. The Japanese, on their part, were afraid of fatal losses from a reckless advance, and retreated south to the coastal strategic points of *Ulsan*, *Suncheon* and *Saju* to strengthen their defenses.

At the end of that year the Ming-*Joseon* Allied Forces, now numbering 50,000 strong as Ming troops continued to arrive, launched counterattacks along a number of routes. Their objective was the occupying forces in *Ulsan*, and they checked *Suncheon* so that it could not send aid to *Ulsan*. This effort proceeded smoothly, but because a strategic oversight placed the main body of the allied forces in *Dosan*, a chance was unfortunately squandered to annihilate the invaders. In a particularly regrettable turn, the flow of the war was reversed when disorganized management of an allied retreat allowed the enemy to inflict heavy losses. But the Japanese too grew fatigued and low in morale. Half their strength returned home, while about 60,000 remained in *Ulsan*, *Suncheon* and *Sacheon* to erect fortifications and drag on a face-off with the allies.

The allied forces were long unsuccessful in bringing about a decisive turn in the war. When *Toyotomi Hideyoshi* died in Japan, and the political situation at home diverted Japan's attention, a formal request was made to the Ming emperor to reinforce the expeditionary forces. Naval forces were built up, the forward commanders replaced and the troops redeployed in preparation for an all-out advance. At last by totally destroying the Japanese fleet off *Noryangjin*, Ming and *Joseon* brought the invasion to the end.

A number of lessons may be extracted from an overview of this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ese invaders: (1) early success is the fundamental of victory; (2) maximizing the advantages and avoiding unfavorable situations are the preconditions of achieving superiority; (3) accurate and decisive management is the key to victory. Observance of these principles explain the victory the allied forces achieved in the *Noryangjin* naval battle.

Key Words : *Toyotomi Hideyoshi*, Second Japanese Invasion, Four-way Advance, Ming-Joseon Alliance, *Noryangjin*

K C I